취 임 사

안녕하십니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제17대 원장 박준기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선 것이 개인으로서는 큰 영광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크게 느끼는 것은 책임의 무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마주한 경영 여건이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렵고, 많은 선배와 동료 여러분들이 일궈 오신 성과를 제가 잘 이어 가고, 더 키워나갈 수 있을지 걱정되는 마음이 크기 때문입니다.

요즘 우리 농업과 농촌 여건은 기후변화, 농촌지역 소멸 우려, AI 기술의 발전 등 빠르고, 복잡하며, 불확실성이 큰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우리 연구원이 잘 대응하기 위해서는 구성원 개인의 전문성을 융합된 힘으로 모으고, 이를 통해 우수한 성과를 다시 연구의 밑거름으로 활용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 연구원의 성과물과 역할에 대한 수요자의 질문은 다음의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연구원의 역량을 결집하여 미래 중장기 정책 방향을 선도적으로 제시하고 있는가? 둘째, 급변하는 대외 여건과 여러 상황에 신속하고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있는가? 셋째, 깊은 통찰과 자신감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정책 대안을 내놓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최근 연구원 경영을 돌아보면, 연구원 안팎의 공감과 신뢰를 충분히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건 변화에 대한 효과적 대응도 충분하지 못했습니다. 복잡한 정책현안을 풀어내기 위해서는 여러 분야의 융복합 연구와 협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내부적 혹은 외부적으로 협력은 활발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쌓이면서 우리의 연구역량을 하나로 모으지 못했고, 경영 비효율로 이어져, 결국 낮은 경영성과로 나타났습니다.

이제 우리 연구원은 구성원 여러분의 공감을 기반으로 연구역량을 모으고, 여러 분야가 어우러진 융복합의 집단지성을 발휘하며,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폐쇄적이지 않은 개방형 지식 네트워크로 전환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통해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농정 개혁의 든든한 동반자로서 위상을 다시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이 길에는 무엇보다 여러분의 협력이 꼭 필요합니다.

우리 연구원이 “미래 농정을 선도하고, 농정 개혁을 견인하는 국책연구기관”으로 재도약하기 위한 경영전략, 다섯 가지를 여러분께 제안합니다.

첫째, 미래 농정의제를 선도하는 정책연구 기능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미래 농정의제 발굴을 상시화하고, 중장기 여건 변화 대응 연구와 신진 연구자들의 도전적 연구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 연구원에 적합한 AI 기반 정책연구 추진체계도 갖추어 나가겠습니다.

둘째, 농업 안팎의 전문성을 잇는 열린 융복합 연구체계를 만들겠습니다. 기후변화, 식량안보, 기본소득, 기술혁신처럼 여러 분야가 얽혀 있는 핵심적이며, 복합적 성격의 과제를 풀기 위해, 분야 간 칸막이를 낮추고, 분야별 융복합 연구를 활성화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닫힌 연구조직’에서 ‘열린 융복합 지식 플랫폼’으로, 미래지향적 연구원으로 변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셋째, 함께 토론하고 서로 공감하는 연구원 문화를 만들겠습니다. 직급과 부서에 넘어서 누구나 편하게 의견을 내고, 정책 대안과 연구원 발전방안을 함께 검토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논의와 연구 협력이 가능한 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지시·전달 중심 조직’에서 ‘토론·공감 중심 연구공동체’로 전환하고, 집단지성의 승수효과가 창출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원칙을 지키면서도 서로를 배려하는, 공정하고 예측 가능한 경영을 하겠습니다.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의 분야에서 역량을 충분히 펼칠 수 있도록 알맞은 자리에 배치하고 힘껏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연구원의 중장기 비전과 일관된 경영원칙을 세우고, 꾸준히 지켜나감으로써, '자의적·단기적 경영'에서 '원칙과 신뢰에 기반한 예측 가능한 경영'으로 전환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책연구에 집중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조직과 연구지원 체계를 갖추겠습니다. 연구와 행정 업무 전반에서 중복되고, 복잡하며, 과도한 형식과 절차를 줄여, 연구지원 기능의 전문성과 신속성을 높이겠습니다. 또한 AI 등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자료 수집, 데이터 분석, 행정 업무, 지식관리의 생산성을 높이고, 경영 효율도 끌어올리겠습니다. 이를 통해 '관리 중심 조직'에서 '연구 몰입과 성과 창출을 지원하는 조직'으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연구원이 '열린 연구원', '함께하는 연구원', '신뢰받는 연구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보면서 경영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우리 연구원의 미래를 보면서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경영목표와 전략이 구호에 그치지 않도록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함께할 때 우리 연구원의 미래 모습은 더 밝고, 더 탄탄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역량과 충심(衷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